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2시
오후 (4부) 12시 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0월 27일 (제713호)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2시
주일에배 7시30분
수요일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한 여인이 꿈을 꾸었다. 남편이 소꿉에 받쳐 비명횡사하는 꿈이었다. 놀란 여인은 남편에게 신신당부했다. “여보, 오 늘은 절대 바깥출입하면 안돼요! 창문도 열지 마세요!” 꿈이 심상치 않다는 말에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있던 남편은 저녁이 되자 너무 지루해서 여 답이 창문을 열고 바깥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귀이개로 귀를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창문이 팽하고 닫혔다. 그 순간 남편은 아 쏘 소리도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쓰러져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절명한 상태. 사인을 규명해보니 창문이 닫히며 귀를 후비던 손을 쳤는데, 귀이개가 귀를 파고들어가 뇌에 박힌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이개는 소꿉을 갈아서 만든 것이었다. 아내의 말을 끝까지 지켰으면 되었을 것을 방심하다가 재앙을 만난 것이다.

이번 집회에 나는 한 꿈을 꾸었다. 통역관인 이 선교사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이 선교사에게 경고해주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첫날, 둘째 날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선교사는 이렇듯 별 탈이 없자 방심했던 모양이다. 마지막 집회에 단에 올라서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심히 힘들어하였다.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부터 남치의 경고를 꿈으로 받고 온 터이라 집회를 마치 고 떠나는 날까지 조심해 조심하며 기도에 힘썼다. 나는 이 사건들을 현지 목회자들에게 들려주며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번 과테말라(Guatemala) 집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남치에 관한 목사님의 꿈을 어떻게 막고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 르느냐’에 있었다. 불길한 꿈으로 한국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무사귀환을 위해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했기에 현지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더욱 궁금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에 찬송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목사님은 위기가 오하려 하나님의

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물샘틈없는 밀착 경호였던 셈이다.

또한 집회가 열린 에스쿠인틀라(Escuintla) 주의 고메라(La Gomera) 시와 인근의 데모크라시아(Democracia) 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마련, 목사님께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며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멕시코(Mexico)에 이어 과테말라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선교기지로 굳혀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착 첫날 저녁, 시에서 만찬을 베풀어 준다는 전갈을 받고 큰 부담감 없이 길

“여러분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이 나라와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6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눈부신 번영과 성장을 이룬 것처럼, 이 과테말라도 세계에 우뚝 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선창으로 시장과 손을 맞잡고 모두가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는 순간, 데모크라시아 시 중앙공원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주 고메라(Gomera) 집회 광경

터 크신 역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기쁨으로 알리고 싶다. 먼저 집회를 주최한 도시의 시장이 숙소, 차량, 식사, 경호 등 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챙기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무엇보다 대통령 아들 오토(Otto)가 나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3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250여명의 중무장한 특수경호부대를 현지에서 파견 배치하여 집회장 및 숙소 주변을 철저히 경호하게 하였다. 특히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맡게 된 경찰들은 밤이나 낮이나 목사님 방 앞을 지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을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경호해주

을 나섰는데, 첩측같이 어두운 밤길을 한 40분 달리더니 어떤 도시의 중앙공원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나와 있었고, 그 도시의 시장이 나와 목사님을 영접하였다. 바로 데모크라시아 시의 로니(Rony Recinos) 시장과 시 공무원들,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데모크라시아 시민들이 참석한 환영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과테말라 국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지는 환영사와 함께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권, 교계 대표로부터 감사패가 각각 목사님께 전달되었다. 현지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행사는 우리 해외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 어린 따뜻한 환대에 목사님은 매우 감동되신 듯했다.

의 밤하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모두가 기쁨과 감동으로 흥만하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고메라 시의 시장, 목회자, 군 장성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역시 공식 환영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고메라 시의 프란시스코(Francisco) 시장은 “이 작은 도시를 찾아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목사님께 명예 시민권과 열쇠를 전달하였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저녁에는 천둥,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모든 부대조건은 충분했지만, 가장 중요한 날씨가 변수로 집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고메라 시장 및 시 공무원들과 함께 환영식을 마치고



데모크라시아 시 환영식에서 감사패를 전달 받은 목사님



고메라 및 데모크라시아지도자 세미나 광경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62:1~12)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미국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초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도 누구처럼 초기 개척시절에는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스미스 목사님은 교회 일로 1만 달러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하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내일 돈을 써야 합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침실이 있는 이층으로 오르는데 파르름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며? 내가 내일 1만 달러 줄게.” 스미스 목사님은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심장에 잠잠히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스미스야, 난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왜 기뻐하는 거니? 친구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만약 네 친구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 말씀에 스미스 목사님은 영영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척 스미스 목사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날 미국 최대 교단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고 기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이

하늘을 재는 분이시며, 그 분에게는 못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고,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시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사40:12-15). 또한 그 분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는 토기장이요, 창조주이십니다(롬9:18-21).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던 모든 것은 그 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이 그 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를 죽이고 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삼상2:6-7).

그에 반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시62:3).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고 있다면, 흔들리는 울타리를 의지하고 있다면, 다치고 죽게 될 것은 자명한 일, 그런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146:3-4).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시편 62편 5-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분이 내 삶에 반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라고 고백했고, 욥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

이 행하시나니 바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

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

시켜 안전한 곳에 있

게 하시니라”(욥5:9-11)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그의 친구인 아벳느고와 사드락, 메삭도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 철야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학생체육관 사용 문제로 부심하던 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어느 권력자에게 학생체육관을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 배려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흔쾌히 저의 부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시대 목사를 그 사람에게 보내어 확답을 듣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시대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분이 부탁을 했는데도 학생체육관 담당자가 거기 사정상 안 된다고 한대요.” 그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아! 내가 왜 권력자를 의지했을까? 하나님에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때 그 일은 제게 평생의 약이 되

었고, 심비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미국에서 몇몇의 땅끝에수전도단 회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호텔의 식당으로 초대하고는 미국 명예 시민권을 건네며 “목사님, 미국을 얻어야 세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사람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나의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미국시민권이 특별한 큰 역할을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도 한 번 두드려 맞은 구멍에는 안 들어가는데, 또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미국을 얻어야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세계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음식그릇으로 그 시민권을 돌려버렸습니다. 만일 제가 미국시민권을 의지했다면 오늘날 이초석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교단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세상 권력자와 재력과 지력가에게 눈도장 찍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입 맞추십시오(시2:12).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했던 양다리 전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121:1-8).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폭력과 신앙양심

최근 나에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나의 조카들 중 첫 번째로 태어났던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일이다. 장소는 다름 아닌 한강,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자살로 단정 지어졌다. 그러나 너무나 착하고 소심했던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가 않았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의사와 경찰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의 부목사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교회 측에서는 성도들이 알기 전에 사색을 비우고 빨리 나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조용했다. 이렇게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 장례식장은 정말 처음이었다. 우두커니 서있는 친척들과 형부가 애처로웠다.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지만, 교인들에게 광고도 하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 다음날에야 부검결과가 나왔다. 자살이 아니었다. 온 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뼈가 다 조각나 있었다. 자살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17세의 훈남이었던 조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조카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시기는 그가 12살 때였다. 그때부터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왔으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강하게 양육한다는 이

유로 아이를 자주 때려서 아이의 기를 눌러서 만들었다. 그런 그는 그렇게 폭력을 당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형부는 눈물 어린 고백과 함께 깊이 회개하고 있었다. 자신이 자랄 때 아버지에게 늘 맞았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맞으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자신 또한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것이다.

나는 가끔 중학생이 된 조카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놀랐었다.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 세상을 다 산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 생각해보니 안타까워서 눈물이 절로 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카를 통하여 느낀 것은 일명 '왕따'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가 왕따를 만들고, 상처 되는 말과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며 목회하던 부목사님을 자녀가 죽었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정에 큰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을 텐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래서야 본보기가 되겠는가? 조카를 통해서 세상 많은 것을 깨닫는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얼굴에 책임져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기의 걸작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어느 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다빈치에게서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는 다빈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다빈치 씨, 왜 그림이 이렇게 늦는 겁니까?" 다빈치는 수도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엽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딱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유다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모델을 도대체 이 땅에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온갖 탐욕과 배신의 모습을 한 유다의 얼굴 또한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 두 얼굴을 그리는 것이 저

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도원장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장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뒤돌아서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조각되어 있고, 심성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링컨에게 사람 하나를 수도원장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뒤돌아서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조각되어 있고, 심성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내면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가토 유다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중심편집실



::Praise the God::



귀를 기울이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대개 부모님을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혼·육의 모든 짐을 털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모두 당신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마11:28-30).

그렇다. 그분은 단지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면 결코 주리지 아

니하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요6:35).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요6:38-39).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리시고 상하시며 온갖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얻는다(사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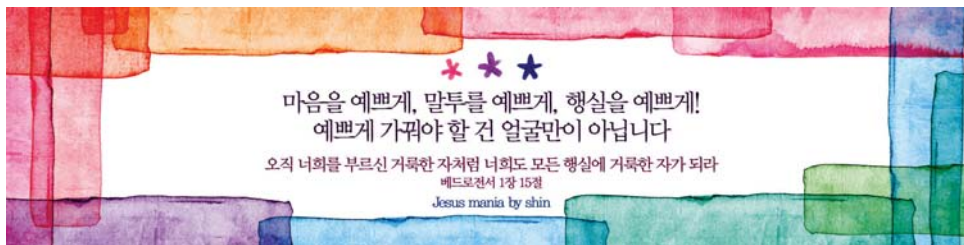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복을 주신다(시115:9-13). 설령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깐 노하실지라도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시30: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

의 대제사장 예수 앞에 때를 따라 들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히4:15-16).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 죄 사함과 평안, 영생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저저 받았으니 저저 주라'(마10:8)는 말씀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 받은 자가 자신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 결국 주인의 분노를 산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마18:21-35).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사귀어 살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황제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나비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비의 '투쟁'을 지켜보던 월리스는 순간, '내가 이 나비를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칼로 고치의 열 부분을 살짝 그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곧 고치를 빠져 나왔고, 움츠러 있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날개를 펴는 듯 했던 나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 늘어지더니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나비는 스스로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응당 겪어야 할 고통과 험난한 투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큰 날개를 지탱할 힘과 바깥세상을 버텨낼 면역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눈물만이 가장 위대한 영혼을 만들어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 속 '투쟁'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치를 칼로 그어주길 바라기 전에, 나비에게 고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이 작은 도시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고메라 시장 부부와 함께

이번 과테말라(Guatemala) 집회는 수도인 과테말라시(Guatemala City)에서 남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에스쿠인틀라(Escuintla) 주의 고메라(La Gomera) 시에서 진행되었다.

과테말라 공항에 내리니 지난 집회에도 함께 했던 왈터(Walter) 목사가 우리를 공항 VIP실로 안내하였다. 아직 이 선교사와 라구나(Laguna) 일행의 비행기는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중년의 남자와 두 여인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남자가 집회를 주최한 목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회를 주관한 목사는 여인이었고, 그 남자는 고메라 시의 시장이며 함께 온 부인은 국회의원이란다. 그 시장의 이름은 프란시스코(Francisco Javier Vasquez Montepeque, 56세). 4년 임기인 시장 직을 16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다. 그 비결을 물으니 그의 대답이 너무 심플하고 겸손하다.

“제가 네 번이나 재선된 이유는 공약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제가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굳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당선되더군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행한 그의 자세였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돕는다고 했다.

“저를 돕는 참모들은 다 목사님들이니

다. 목사님들을 통해서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을 저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시장 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여 목사의 이야기도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이 시장님은 이번 집회에 장소부터 숙소, 식사까지 일체를 제공해주셨습니다. 또한 집회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프란시스코 시장은 시 공무원들을 숙소로 불러 목사님의 고메라 시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어주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우리 도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조석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날의 환영행사에서 시장 및 시 공무원, 목회자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깊이 사의를 표하시며 협력의 구도를 강조하셨다.

“오늘 시장님께서 한 배를 뒀다고 말씀하신 대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세로 시장을 펼쳐간다면, 이 시가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속개된 세미나에는 프란시스코 시장 뿐 아니라 데모크라시아(Democracia) 시의 로니(Rony Recinos) 시장도 참석하였다. 또한 시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목사님의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프란시스코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강조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 깊이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잔데 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다’고 회개하며 한참을 울었다고 고백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침, 프란시스코 시장 부부는 우리 일행을 안티구아(Antigua) 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해주었다. 목사님은 그동안의 피로가 다는 듯들 사라진 듯 시장 부부에게 거듭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 시장은 자신이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목사님처럼 귀하신 분이 이 작은 도시까지 찾아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니 우리가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니카라과(Nicaragua) 집회도 적극 돕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부의 진심에 감동하신 듯,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하려던 전통 자개 미니화장대를 시장 부인에게 선물하며 북 받을 자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집회 때 대통령 아들 오토(Otto)가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오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선물이 시장 부인에게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장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공항까지 따라와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배웅해주었다. 목사님은 그들과 헤어지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교훈으로 시장 부부에게 권면하시며, 주지사 및 대통령의 꿈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Q&A

Q: 우리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결혼 후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남편은 교회에 올 때마다 자증을 내고 결박하면 평계를 대며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로 저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곤 합니다. 그런 남편이 가까운 동네 교회로 옮기면 열심히 다니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자매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 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도 따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도 곁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틀에 박힌 듯 하는 말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나면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아내마저도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하려 들어가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 구원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최상의 길입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기 이렇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아테네의 멸망은 감기가 원인이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감기는 풍(風)에 의한 것으로 한기를 띠는 경우와 열기를 띠는 경우로 나뉜다.

풍에 한기를 띠는 풍한성 감기는 오한(추위를 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재채기, 맑은 콧물, 기침, 두통 등이 나타나며, 땀이 나지 않는다. 이런 증상에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총시탕을 먹어 보자. 총시탕은 파의 흰 뿌리, 된장, 소엽, 굴결집, 도라지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풍에 열기를 띠는 풍열성 감기는 열이 심하면서 땀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기침과 함께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프며, 탁하고 끈적거리는 가래가 나온다. 그리고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있고 소변이 황적색을 띤다. 이럴 때에는 박하차나 죽엽을 20g씩 넣어서 끓여 마시도록 한다.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상엽, 즉 뽕나무 잎을 12g씩 차로 끓여 마신다. 목이 아프거나 편도가 부었으면 치자 한 개를 우려내 먹는다.

감기중 위장형 감기는 식욕이 없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꾸 토하려 하며, 흉부와 복부가 답답하고 그득하다. 대변은 마치 진흙 같고, 답이 끓어 가르름거리며, 두통 또는 관절마다 심한 냉기와 통증이 나타난다. 이때에도 박하차를 마시거나 행방패독산(인삼, 갈합, 독활, 시호, 전호, 천궁, 지각, 길경, 박하, 형개, 방풍, 감초 각 4g, 생강 3쪽) 처방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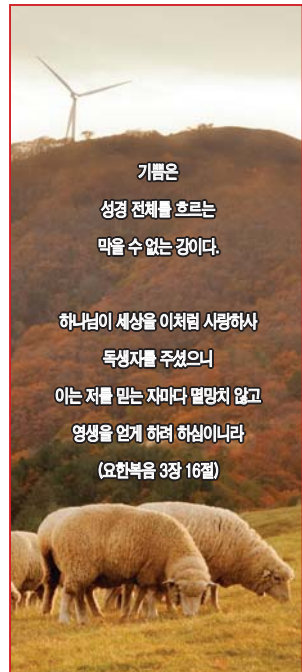
또한 항생제나 소염제로 감기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종종 감기 말미에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체내 손상이 원인으로 폐, 비장, 음허 3가지가 원인이다. 첫째, 폐가 허약해서 기침은 음성이 미약하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안면이 창백하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에 잘 걸리고, 가래는 적다. 이때는 인삼, 오미자, 황기를 각 6g씩 끓여 먹는다. 둘째, 폐장과 비장이 허약해서 온 기침이 있다. 이 경우도 오래도록 낫지 않고 반복하며, 가래가 많고 양이 많으며 대변이 묽다. 이때에는 삼령백출산(인삼, 백출, 복령, 산약, 감초 각 12g 백편두, 연자, 길경, 의인, 사인 각 6g 대추2개, 생강 3쪽)에 진피, 반하, 행인을 가한다. 셋째, 음허(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생긴)로 온 것은 마른기침을 한다. 몸에 열이 오르고, 수면 중 땀을 흘리고, 양 볼이 빨갛게 홍조를 띠며, 손발에 열이 나고, 입이 건조하며 불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에는 백합부리를 6g씩 끓여 마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5:34).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믿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